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22일 (음력 12월 17일) 화요일

평화당 “손혜원 사태 국정조사해야”...당론 채택

내일 목포에서 최고위 추진...주민 입장 청취 예정 정동영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른가...개혁의지 실종” 유성엽 “개발지역 집중...기획 부동산 전형적 수법”

민주평화당이 최근 '목포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한다”며 “지금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유산 지정과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청장을 불러 관련 예산 책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3일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목포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목포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길 원하는지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손 의원과 최근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 불과 1년개월 된 권력 이념가. 5년이 지나면 뭐가 쏟아져 나오겠는가”라며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른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쇄신은커녕 아부가 판을 치는 이 정권에서 개혁의지가 실종된 이유를 알겠다”며 “검찰개혁, 재벌개혁은 언제 할 것인가. 이 정부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출범한 개혁정권이다. 지금이라도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우리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가 물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남 손 의원의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의와 가까운 의원의 탈당을 민류하는 지도부, 저와 같이 광야에 서겠다는 의원이 있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포기 정권 권력을 누리는 정권, 기득권에 안주한 전라한 정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현 상황에서 검찰 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는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적인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사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 손 의원은 적극 협조할 테니 당당히 국정조사를 열어서 진실을 밝히자고 민주당에 주장해야 한다. 밀실에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손 의원 사태로 정국이 마비될 지경이다. 어불진 망신은 팔뚝기가 시킨다더니 국회의원 망신을 제대로 시키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자고 주장해 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개발지역으로 민들었는데 개발되는 지역에만 집중해서 부동산

20여 채가 넘게 있다면 어떻게 봐야하나 기획 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 의원은 손 의원 사태를 ‘권력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지적도 던졌다. 그는 “손 의원의 문화재 사안이 익히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실증이 가도 정식조사 전에 숙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손 의원이 영부인과 동창이라고 해서 초권력 게이트라고 상상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흐리게 할 뿐”이라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Photo 漫評

최충우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하고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을 양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 놓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SBS에 대해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평화민주당의 의원에게도 격한 감정을 표했다.

관련 인사의 속세를 상상해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 = 뉴시스



손혜원



박지원



손혜원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 “광주형 일자리, 화합·상생모 델되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광주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화합·상생의 경제 모델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손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민주정신으로 빛나던 광주가 이제 한편으로는 광주형일자리로 기억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일자리로 전국적 확산을 이야기할 정도”고 말했다.

또 “이제는 화합과 상생의 경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과거 노동운동과 민

운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노동과 노동조합도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경제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도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던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주의의 본고장 광주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우리당은 정부에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철학으로 바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중창로우체국 앞에 설치된 ‘손다방 연동형비례대표제 푸드트럭’에 올라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하고 있다.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